“‘양림’을 지켜왔던 사람들 이야기 들어보실래요”

광주시립극단 30일 문예회관

▼광주시립극단 낭독공연 ‘양림’이 오는 30일 광주문예회관에서 열린다. 사진은 ‘양림’ 연습 장면.

창작희곡공모당선작 이정아 작가 ‘양림’ 원작 각색
이석준 연출 “낭독극 묘미 살리고 영상으로 감동 더해”

“요셉, 양림이 있어서 네가 있는 게 아니야. 네가 있어서 양림이 있는거야. 기억하렴.”

여덟 명의 배우들이 각자 자리에 앉아 앞에 놓인 대본을 읽는다. 그러다가도 시시 때때로 무대 가운데로 나와 연기를 펼쳐보이며, 아역배우들은 연습실 뒷편에서 달려나와 온 무대를 종횡무진 누빈다. 시간의 흐름에 따라 일본인 순사, 미국인 플로렌스 루트 등으로 역할이 바뀌고 시대적 배경이 달라질 때는 새로운 의상을 입거나 소품을 활용해 연기한다.

광주시립극단(이하 극단)이 오는 30일(오후 4시·7시30분 광주문화예술회관 소극장) 처음으로 선보이는 낭독공연 ‘양림(楊林)’ 연습 현장 모습이다.

극단은 지금까지 ‘셰익스피어 in 광주’, ‘전우치’ 시리즈, ‘고전명작극장’ 등 다양한 작품을 무대에 올려왔지만 배우들의 목소리와 대사가 주를 이루는 낭독공연을 선보이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를 위해 극단은 지난해 제1회 창작희곡 공모전을 진행했고 그 결과 이정아 작가의 ‘양림(楊林)’이 당선됐다.

이번 공연은 지역에서는 평소 접하기 어려웠던 낭독극의 묘미를 느낄 수 있는 기회다. 낭독극은 희곡 자체에 오롯이 집중할 수 있는 것이 가장 큰 특징인데 배우들의 대사와 호흡을 따라가다 보면 상상력이 더해져 작품의 재미와 배우들의 연기가 극대화 되는 경험을 할 수 있다. 아울러 이번 작품에서는 액션과 영상 등도 볼 수 있다.

신학을 전공하고, 20년간 ‘양림’에 천착해온 이 작가는 ‘이야기가 세상을 구원할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작품을 썼다고 밝혔다. 이 작가는 “잔인한 폭력과 죽음의 역사 앞에서도 양림의 사람들은 스스로 한 알의 밀알이 되어 기꺼이 숲을 일구어왔다”며 “이러한 양림을 기억하고, 그것 또한 광주의 정신임을 많은 이들에게 전하고 싶다”고 전했다.

이석준 연출가

작품은 굴곡의 시기를 겪어내며 죽음의 땅 양림을 생명의 숲으로 변화시키고 지켜낸 양림 사람들의 삶을 담아낸다. 주인공 선이는 풍장터였던 땅에 병원과 학교를 세워 가난하고 병든 이들을 돌봤던 선교사들이 심은 생명의 밀알이다. ‘양림’은 일제강점기, 한국전쟁, 80년 5월을 관통하는 주인공의 삶을 통해 생명과 사랑의 의미를 전한다.

이번 작품의 연출은 뮤지컬 배우이자 연극 배우인 이석준이 맡았다. 그는 1996년 연극 ‘바람과 함께 사라지다’로 데뷔해 지금까지 드라마 ‘로스쿨’, 영화 ‘룸’, ‘멋진 인생’, 연극 ‘엘리펀트 송’, ‘에쿠우스’, ‘킬 미 나우’ 등 다수의 작품에 출연했으며, 최근에는 뮤지컬 ‘신과함께 가라’, ‘아이위시’, ‘길 위의 나라’ 등을 연출했다.

그는 “‘양림’에 대한 이야기를 처음 접했을 때 너무나 부끄러웠다”며 “이 작은 동네에 이렇게 길고긴 서사가 숨어있을 줄은 상상도 못했다”고 말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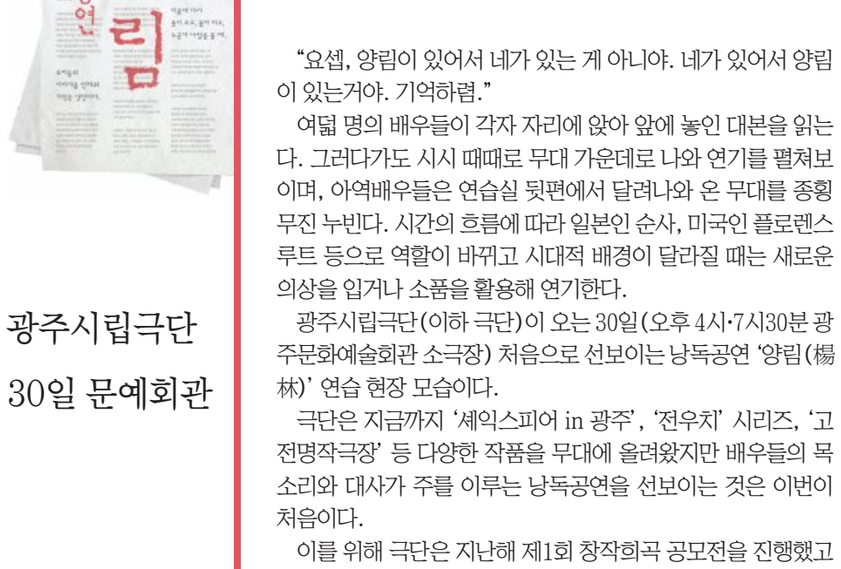
“시인 김현승, 음악가 정율성 등의 이야기를 접할 때마다 충격을 받았어요. 지금 우리는 너무나 많은 위인들을 놓치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죠. 공연 준비 차 양림동 서서평 선교사 묘역에 들렀을 때는 그 분이 이 땅 속에 묻혔다는 사실이 믿겨지지 않았지만 한편으론 그의 삶이 느껴지는 것도 같았습니다.”

그는 이번 작품을 통해 “당신이 여기에 있기 때문에 양림이 존재한다”는 메시지를 전하고 싶다. 특히 무대를 배우들의 대사와 감정으로만 채우지 않고 영상, 조명, 음악 등을 활용해 ‘양림’을 지켜왔던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려줄 예정이다.

“연극, 드라마, 뮤지컬 등 가리지 않고 배우로서 30년 간 활동했지만 이렇게 설레는 작품은 처음이예요. ‘헤드윅’ 때 보다도요. 작품의 본질을 훼손할까봐 걱정도 되지만 나도 몰랐던 우리의 스토리를 찾아 선보일 수 있다는 것이 행복합니다.”

이번 공연에는 이명덕·정이형·엄태리·황옥선·이영환·이혜원·김예은·유인서가 참여하며, ‘양림’은 이후 관객과 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해 완성작으로 무대에 올려질 예정이다.

8세 이상 관람할 수 있으며 러닝타임 90분, 관람료는 전석 무료이다. 예매는 광주문화예술회관 홈페이지에서 하면 된다. 문의 062-613-8230. /글·사진=전은재 기자 ej6621@



‘애도는 어떻게 하는 거였더라’

강수지 작 ‘On The Nature Of Daylight 2021’

26일부터 광주여성가족재단…강수지·김원경 작가 등 참여

‘더 이상 단 한 명의 여성도 잃을 수 없다’

광주여성가족재단(대표 김미경)은 26일부터 10월 14일까지 재단 3층 광주여성전시관 허스토리(Herstory)에서 제4회 Herstory 기획전시 공모전 선정작 ‘애도는 어떻게 하는 거였더라’ 전을 개최한다.

이번 전시에는 시각예술과 문학 분야에서 활동중인 강수지·김원경·이서영·이하영 등 네 명의 작가가 참여해 연이은 성범죄 피해자의 부고, 가정폭력으로 사망한 여성 등의 삶과 이야기를 조명한다. 이들은 사진, 영상, 설치, 조각과 문학 등을 통해 코로나 19 확산 이후 사라진 여성들, 애도의 방식, 여성들의 우정과 연대 등에 대한 이야기를 풀어낸다.

먼저 강수지·이하영 작가는 코로나 19 확산 이후 증가한 20대 여성들의 자살률에 주목해 사라진 여성들이 서 있던 자리를 기록한 ‘Ways of Mourning’을 선보인다. 장소를 담은 사진과 함께 놓인 일상의 장면들에 문학가 김원경의 글이 더해져 그들의 삶을 구체적으로 만나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또한 공동체의 화합과 안녕을 도왔던 ‘길쌈놀이(단심줄놀이)’를 모티브로 한 퍼포먼스는 이서영 작가와 김원경 작가가 수집한 문장들로 구성됐다.

강수지 작가가 영상으로 담아낸 구 광주국군병원은 이서영 작가의 시와 결합돼 우리에게 필요한 애도의 형태는 무엇인지에 대해 전한다.

한편 오는 31일 빛고을시민문화관에서는 전시와 연계한 프로그램 ‘애도를 위한 글쓰기’가 열린다. 작품 ‘애도를 위한 몸풀기’와 관련한 퍼포머 워크숍으로 김원경·이서영 작가가 진행한다. 프로그램 결과물은 작품에 수놓아 전시장에 선보일 예정이다. 문의 062-670-0563. /전은재 기자 ej6621@kwangju.co.kr

최용호 그림책 작가 북토크 25일 독립서점 사이시옷

최용호〈사진〉 그림책 작가는 광주시민과 함께해 온 광주극장의 크고 작은 이야기를 그림으로 그린 작가다. 지난 2020년에 발간한 그림책 ‘세상에서 가장 따뜻한 극장’(글 광주극장·이상희·김영미)의 그림을 그렸다.

지역 동네책방들과 함께하는 비대면 릴레이 북토크 ‘광주면면’이 이번에는 최용호 그림책 작가를 만난다. 25일 오후 7시 서구 화정동 독립서점 사이시옷에서 진행되며, 광주문화재단 TV를 통해 유튜브 생중계된다.

이번 책 ‘세상에서 가장 따뜻한 극장’에는 광주 근현대사와 아울러 시민들과 함께해 온 광주극장의 크고 작은 이야기가 담겨 있다.

광주 출신 최용호 작가는 세종대학교 회화과를 졸업 후 서울시립대 디자인대학원 일러스트레이션 전공을 수료했다. ‘태양의새 삼족오’ 등 여러 그림책에 그림을 그렸고, ‘리스본행 야간열차’ 등의 표지를 그렸다.

‘광주면면’은 유튜브 생중계로 누구나 실시간 참여 가능하다. 문화재단 홈페이지에서 8월 북토크 카드뉴스에 있는 QR코드를 찍어 작가에게 사전질문을 남기거나, 생중계가 진행되는 동안 유튜브에 실시간 댓글을 남기면 책방에서 추첨을 통해 4~5명의 참가자에게 블라인드북을 제공한다. 062-670-7492, 010-9452-1606. /박성천 기자 skypark@kwangju.co.kr

미스터리 퍼포먼스 ‘스냅’ 오늘 빛고을아트스페이스

광주문화재단은 삭온스크린 4회차 공연으로 미스터리 퍼포먼스 ‘스냅’을 24일 오후 7시30분 빛고을아트스페이스 5층 소공연장에서 상영한다.

미스터리 퍼포먼스 ‘스냅’은 일반적인 마술쇼와 달리 마임, 쉐도우그래피, 미디어아트, 마술 등이 결합한 넌버벌(무언극) 공연이다. 지난 2019년 브로드웨이 42번가 뉴빅토리 극장에 공식 초청을 받았으며 상영시간 50분.

방역지침 준수에 따라 선착순 50명으로 인원을 제한하며 입장료는 무료다. 희망자는 전화(062-670-7933) 신청하면 된다.

한편, 지난 2016년부터 6년 동안 빛고을아트스페이스 5층 소공연장에서 매월 진행되는 ‘삭온스크린’은 예술의전당 우수공연 작품을 시민들에게 상영하는 프로그램이다. 오는 9월에는 ‘(넌버벌)정크, 클라운’이 예정돼 있다. 문의 062-670-7933. /박성천 기자 skypark@

여름정원

조영애 개인전 31일까지 LH휴랑갤러리

마음을 따뜻하게 해주는 노란 해바라기, 다양한 색깔의 수국과 맨드라미, 더위를 피하게 해주는 초록의 숲.

여름의 순간들을 담은 작품을 만날 수 있는 전시회가 열린다.

서양화가 조영애 작가 개인전이 오는 31일까지 광주시 서구 한국토지주택공사 광주·전남 본부 LH휴랑갤러리에서 열린다.

‘여름 정원’을 주제로 열리는 이번 전시에서 조 작가는 정통 회화 작품 뿐 아니라 다양한 재료를 활용해 화면을 풍성하게 만든 실험적 작품 등 모두 22점을 선보이고 있다.

해바라기 등 다양한 꽃이 어우러진 ‘행복을 담다’는 한지를 뭉쳐 화면에 부착한 후 아크릴 물감으로 색을 입히고, 다채로운 색실을 활용해 화사한 꽃의 형상을 만들어낸 작품으로 눈길을 끈다. 또 탐스러운 참외와 푸른 줄기가 인상적인 ‘복덩이들’, 겹겹의 푸른색이 만들어낸 바다 풍광이 시원함을 전하는 ‘날개를 달다’ 등의 작품을 만날 수 있다.

전남대를 졸업한 조 작가는 지금까지 8차례 개인전을 열었으며 대한민국 미술대전 특선, 전남도미술대전 특선 등을 수상했다. 여수여성미술작가회 회장을 역임했으며 전남여성미술작가회, 청맥회, 광주전남문인화협회, Art몬드리안회 회원으로 활동중이다. 문의 062-360-3390. /김미은 기자 mekim@

‘행복을 담다’